



## 3분기, 신흥국펀드에서 한국비중 축소

### 1. 신흥국 주식ETF 유입 규모 소폭 증가

- 미국 주식ETF는 4분기 이후 유입 규모 조금씩 증가
- 신흥국 주식펀드도 10월 중순 이후 자금 유입 규모 소폭 증가 추세.
- 델타변이 확산 이후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는 순유입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음

### 2.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영국 등의 순매도 규모는 감소

- 10월 미국(1.3조원)과 영국(6240억원)의 순매도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3.3조원 기록
- 10월 미국과 영국 등이 순매도를 기록하였지만, 순매도 규모는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상황

### 3.. 하반기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감소

- 신흥국 주식펀드에서 우리나라의 비중(단순평균)은 6월 10.0%에서 10월 9.4%로 감소
- 같은기간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인도 비중은 9.5%에서 10.6%, 대만은 10.3%에서 11.1%로 증가
- 최근 외국인 매도로 우리나라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 안에서 추가적인 비중 축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1. 신흥국 주식ETF 유입 규모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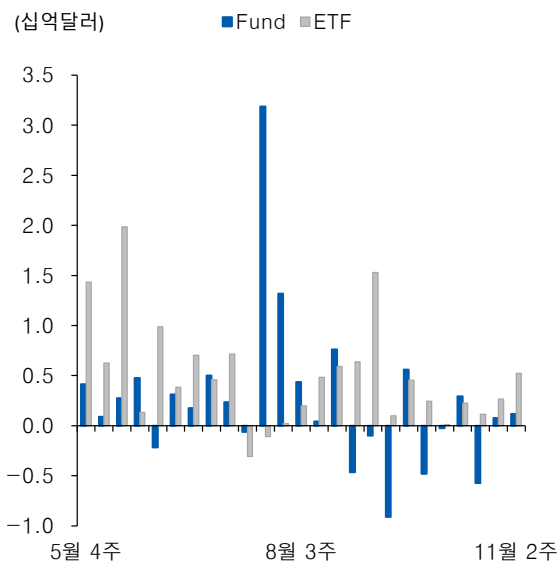
테이퍼링, 공급망 문제, 인플레이션 등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달러 강세로 글로벌 유동성의 선진국 선호가 두드러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도가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주식 펀드와 ETF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아직은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 주식ETF를 살펴보면, 4분기 이후 유입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미국 채권펀드와 ETF는 꾸준히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유럽의 주식펀드와 ETF는 순유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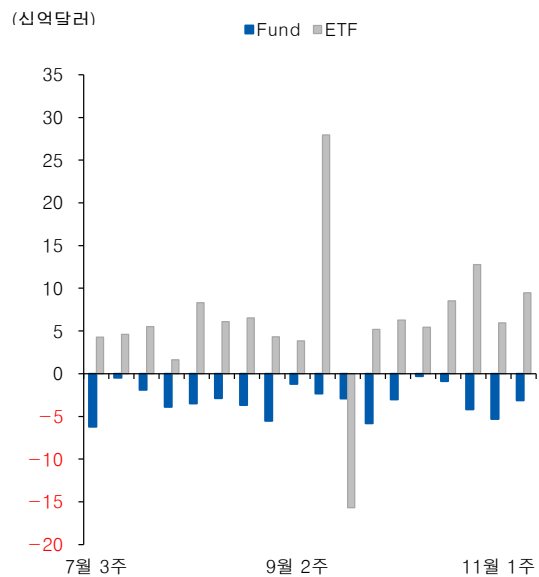
신흥국 주식펀드도 10월 중순 이후 자금 유입 규모가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델타변이 확산 이후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는 순유입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차트1] 신흥국 주식ETF는 자금 유입 규모 증가 추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미국주식 ETF는 순유입 지속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영국 등의 순매도 규모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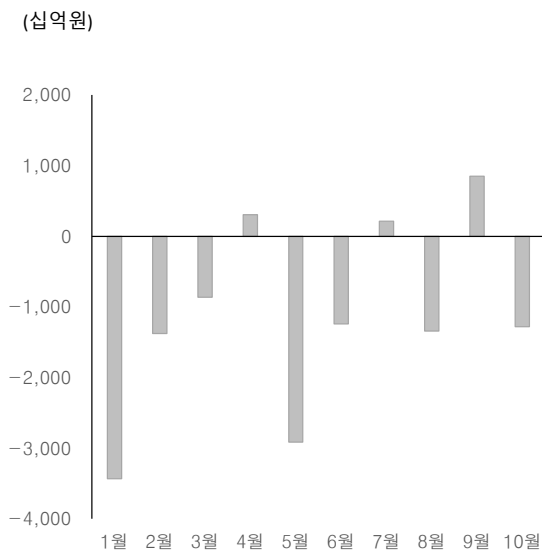
연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났었다.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연기금의 투자 규모가 큰 국가들의 순매도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다.

8월 7.8조원의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은 9월 우리나라 주식을 2.5조원 순매수하였다. 하지만 10월 미국(1.3조원)과 영국(6240억원)의 순매도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3.3조원을 기록하였다. 10월 순매수를 기록한 국가는 캐나다, 케이맨제도, 홍콩, 아일랜드, 버뮤다 등으로, 상대적으로 장기펀드의 비중이 낮은 특징이 있다.

신흥국 주식펀드 등에서는 소폭이나마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드 안에서의 비중 축소와 연기금·국부펀드 등의 투자 주체의 매도가 외국인 순매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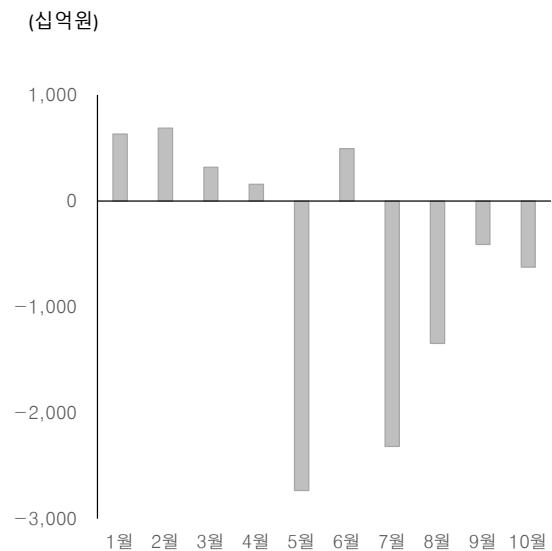
10월 미국과 영국 등이 순매도를 기록하였지만, 순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점은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차트3]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순매도 규모는 감소 추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영국의 순매도 규모 감소 추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3. 하반기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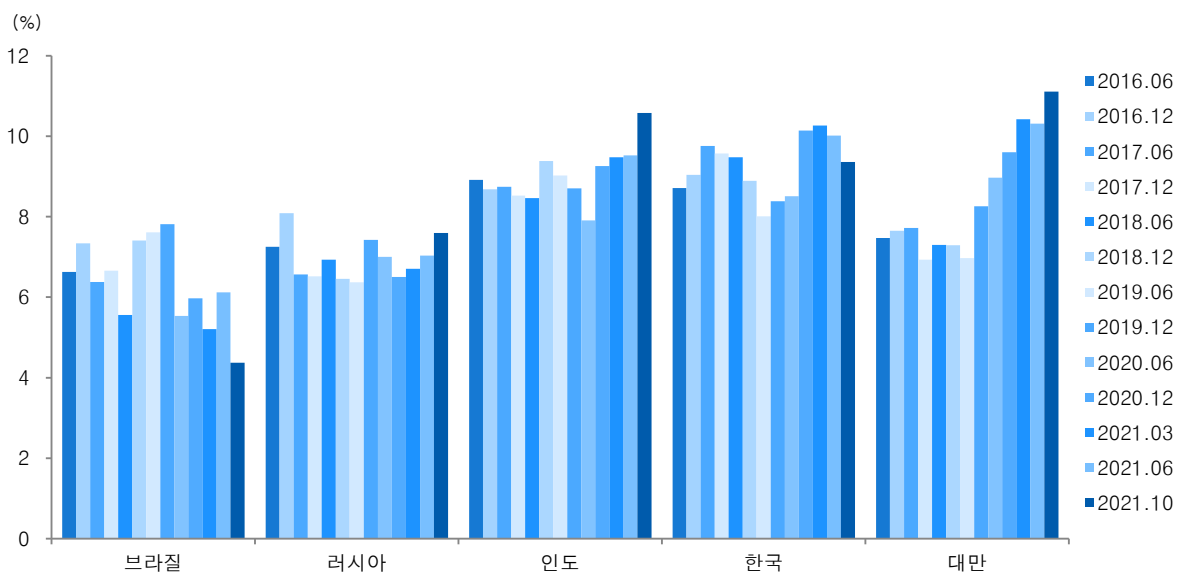
신흥국 주식펀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순유입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신흥국 안에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신흥국 주식펀드에서 우리나라의 비중(단순평균)을 살펴보면, 6월 10.0%에서 10월 9.4%로 줄어들었다. 같은기간 인도는 9.5%에서 10.6%로, 대만은 10.3%에서 11.1%로 늘어났다. 2015년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보다 낮은 비중으로 투자되었던 대만은 10월 기준으로 한국보다 투자 비중이 1.7%나 높아졌다.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의 비중은 24.7%로 작년말 28.4%보다 크게 낮아졌다.

신흥국 주식펀드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상황 하에서, 단기적으로 대만과 인도의 비중은 빠르게 높아졌다. 최근 외국인 매도로 우리나라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의 가적인 비중 축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차트5] 하반기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감소, 인도와 대만 비중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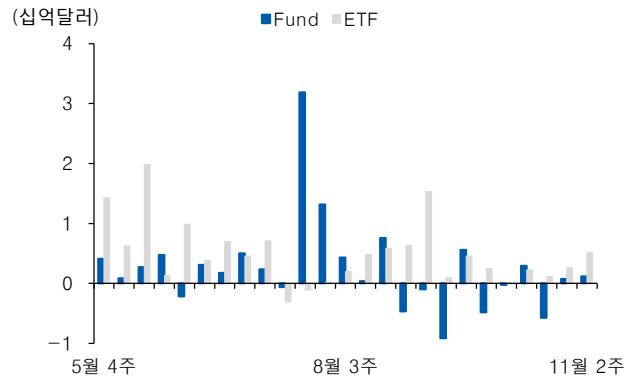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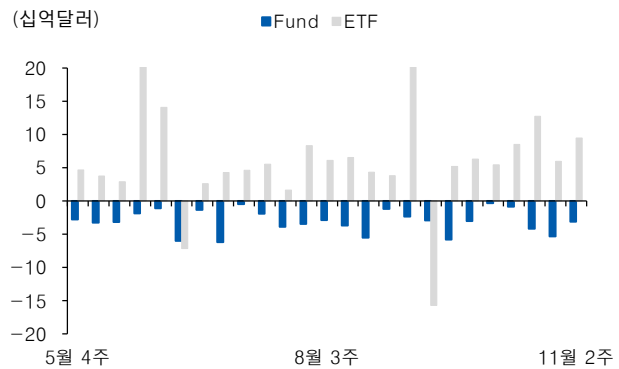
## Key Chart

신흥국 주식ETF는 자금 유입 규모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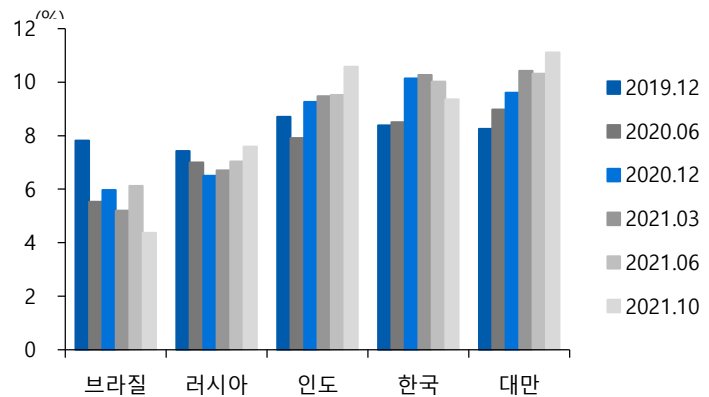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주식ETF는 순유입 지속.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하반기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감소, 인도와 대만 비중은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